목포에 대규모 복합형 숙박시설 들어선다

(주)여수예술랜드,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

목포에 대규모 복합형 숙박시설 들어선다. 왼쪽부터 김영록 도지사, 예술랜드 김현철대표, 김종식 목포시장 /목포시 제공

목포시(시장 김종식)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25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주)여수예술랜드(대표 김현철)와 대규모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주)여수예술랜드는 목포시 율도동 장좌도 일원(292,748㎡)에 1,500억원을 투자해 370 객실 및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대형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협약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숙박시설 370객실(일반펜션, 수상펜션, 글램핑), 3D 트릭아트 체험관, 워터파크, 조각공원, ATV, 스카이바이크 등 다양한 해양레저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대규모 숙박시설 부재로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목포에 아름다운 바다와 섬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해양레저시설 복합 대형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면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는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앞으로 투자자와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실시협약을 맺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대형 숙박시설은 목포시와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였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게미진 음식, 근대역사문화공간, 해상케이블카 등 기존의 다양한 관광인프라에 명품 레져 숙박시설이 더해져 목포가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광거점도시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여수예술랜드는 현재 여수시 돌산읍에 1,000억원을 투자해 숙박시설, 미술공원, 등 테마형 리조트를 조성해 지금은 여수의 색다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장성군 "올 여름엔 아삭아삭 차돌 복숭아"

장성군, 25일부터 차돌 복숭아 출하

차돌 복숭아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속이 꽉 차 있어 식감이 뛰어나다. 특히, 무더위에 지친 기력을 회복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을 갖고 있어 여름철 과일로 제격이다.

또 과육이 단단해 일반 복숭아보다 두 배 가까이 저장력이 강하다. 저온에서 보름 이상 보관이 가능해, 바캉스에 가져가기 좋다. 게다가 복숭아 특유의 잔털이 없어 알러지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장성 차돌 복숭아는 엄격한 공동선별 과정을 거쳐 최상급의 상품만을 출하하고 있다. 올해 장성군에서는 47ha 규모 115농가에서 복숭아를 재배했는데 그 가운데 80% 가량을 차돌 복숭아가 차지할 정도로 농가에서도 인기가 높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금년에는 재배기간 동안 야간 온도가 낮아 당도가 특히 높다"면서 "올 여름 피서길에는 장성 차돌 복숭아를 꼭 챙겨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장성군 차돌 복숭아의 출하는 8월 15일까지 약 20여 일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당도는 평균 12브릭스(brix) 이상으로, 4.5kg 한 박스 당 가격은 중품 2만5천 원, 상품 3만 원이다. 구입 문의는 진원농협 복숭아공선회(061-392-5034)로 하면 된다. 오는 29일에는 진원농협 주관으로 국회의사당에서 직판행사도 실시한다.

/장성=정윤섭 기자 jjs@

무안군 청계면 새마을부녀회, 어르신 닭죽 나눔 봉사

무안군 청계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임경심)는 23일 청계면 복합센터 1층 강당에서 어르신 200여명을 모시고 닭죽을 대접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청계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임경심)는 지난 23일 청계면 복합센터 1층 강당에서 어르신 200여명을 모시고 닭죽을 대접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며칠 전부터 김치를 담그고 수육, 떡, 과일 등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푸짐한 식사를 대접했다.

임경심 부녀회장은 "매번 반가운 얼굴로 찾아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감사하고,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뵈면 힘이 난다"고 말했다.

또 "무더위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계면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봉사를 해주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기 좋은 청계면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안=고민재 기자

나주시 '지역살림 시민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 75명 위촉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식 /나주시 제공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 7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1년 6개월('19. 7. 1.~'20. 12. 31.) 임기 동안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는 이날 위촉식을 통해 제6기 위원들을 대표할 위원장에 정광호 씨(송월동), 부위원장에 한송호 씨(성북동)를 각각 선출했으며, 총무·복지, 미래전략산업, 안전도시건설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시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제도로써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시원한 주말 나들이, 담양 '소풍마켓'

27일 토요일, 담양 메타세쿼이아 인증센터(후문)에서 열려

우천 예보로 인해 연기된 담양 '소풍마켓'이 오는 27일 토요일 메타세쿼이아 인증센터(후문)에서 다시 열린다.

지난 6월 마켓과 같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서 열리며, 제품 판매와 체험, 공연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메타세쿼이아길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구슬발을 설치해 숲 속의 작은 동산을 연상시키는 포토존과 나무 그늘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과 피아노 선율이 함께하는 로맨틱한 문화공연이 관람객을 맞는다.

또한 지난 마켓에서 반응이 좋았던 럭키타임 이벤트(SNS 인증 시 이용권 지급)와 구매왕 이벤트 외에도 모기퇴치제 만들기, 우드 버닝 체험, 꽃밥 만들기, 블럭 맞추기, 바람개비 만들기, 메타세쿼이아 컬러링 체험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이 가득 준비돼 있다.

한편 소풍마켓은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경제 참여를 통한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군에서 육성한 풀뿌리공동체,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과 담양군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주민참여형 마켓이다.

/담양=강종연 기자 jlbest1@